

하반기 음반 시장

'댄싱 킹' 비-세븐 빅매치

10월 나란히 발표...맞대결 주목

동방신기 등 신세대 스타 잇단 출격

이승철·신승훈 등 "인기 다시 한번"

올 하반기 음반시장에서도 장르별, 세대별로 가리끼 치열한 대결구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대별·장르별로 몇 가지 트렌드를 형성한다. 비·세븐·동방신기·SS501·아이비 등 신세대 스타의 대거 컴백, 신승훈·이승철·김장훈·김건모 등 지지층이 폭넓은 중량급 가수들의 복귀도 예정돼 있다.

▲신세대 스타 출격 러시

하반기에는 비·세븐·동방신기 등 상반기 해외 활동에 주력한 스타들이 '집안 단속'에 나선다. 빅매치는 10월 나란히 정규 4집을 발표하는 '댄싱 킹' 비와 세븐의 맞대결. 4집의 음악 스타일과 이미지 콘셉트를 결정할 비는 선곡을 거의 마친 상태다. 세븐도 오는 10월 7개월 만에 4집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돌 그룹의 경쟁도 불꽃 튀긴다. 8월 YG 10주년 기념 공연에서 데뷔 무대를 갖는 신인그룹 빅뱅을 시작으로 SS501이 8~9월 정규 1집, 동방신기가 9~10월 정규 3집을 발표한다. 이밖에 오는 9월에는 코요태가 9집, 성시경이 5집을 선보이는 데 이어 10월에는 휘성이 5집, 아이비가 2집을 발표할 예정이다.

▲20~30대 지지 얻는 우상의 귀환

9월에는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과 '공연의 귀재' 김장훈이 동시 입장한다. 이승철은 9월 정규 8집을 발표하며, 한 달간 소극장서 공연중

인 김장훈은 9월 9집에서 후배작곡가들과 손을 잡고 변화를 줄 예정이다.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은 10월 9일 정규 10집을 발표한다. 그간 일본 활동에 주력한 신승훈은 2004년 발표한 9집 이후 2년 8개월 만에 새 음반을 낸다. 심어송라이터답게 자택에서 작업중으로 현재 14곡 가량 완성한 상태.

이밖에 김건모가 가을 발매를 목표로 11집 준비에 착수했으며, YB(윤도현밴드)가 8월에 7집을, 엄정화와 유리상자가 9월에 각각 9집을 낸다.

▲여성그룹 출신 솔로 무대기 변신

일본 인기가수 고다쿠미의 변안곡 '큐티 하니(Cutie Honey)'로 솔로 데뷔한 아이유를 시작으로 8월 초 황보, 같은 달 중순 박정아, 9월 김미연과 배슬기, 10월 서인영이 차례로 등장한다.

황보의 솔로 음반은 포지션 출신 작곡가 안정훈이 전두지휘하며 박정아는 팝 록으로 장르 변화를 꾀한 그룹 시절 이미지를 버린다. 김미연은 성숙한 발라드 가수로 돌아올 예정이며 배슬기는 9월 댄스 음악을 들고 솔로로 변신한다. 또 힙합댄스를 선보일 서인영의 솔로 음반은 업타운의 정연준이 프로듀서를 맡았다.

▲하반기 이글 힙합전사도 포진

올해 하반기 힙합계를 접수할 래퍼들도 분주하다. MC몽은 9월 초 3집을 낼 예정이며 10월에는 에픽하이와 국내 최고의 여성 래퍼로 꼽히는 윤미래가 R&B로 승부를 건 3집을 발매한다. 또 드렁큰 타이거 역시 12월에 새음반을 내놓는다.

/객선정기자 ks@kwangju.co.kr



<비>



<동방신기>



<이승철>

'위기의 주부들' 가라... '발칙한 여자들'이 왔다

MBC 새 주말극 오늘부터 방영
유호정·사강 등 유쾌한 질투 보여줘



코믹과 미스터리, 가족애까지 버무린 미국 ABC의 TV 시리즈 '위기의 주부들'은 미국 대통령 부인 로라 부시도 즐겨 본다고 말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은 바 있다.

'위기의 주부들'을 연상케 하는 드라마가 시청자를 찾아간다. 29일 첫 방송되는 MBC 특별기획 새 주말극 '발칙한 여자들'(극본 문희정, 연출 이승렬)은 유호정(사진 왼쪽), 임지은, 사강 등이 30대 주부로 분해 '발칙한 상상'을 펼치는 드라마.

연출자인 이승렬 PD는 "'위기의 주부들'에서 힌트를 얻었지만 나름대로 독자적인 소재를 찾아가고 있다"면서 "주부관 '질투'를 만들면 어떻게든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

데 '질투' 특유의 감각과 스타일로 '위기의 주부들'과는 다른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PD는 92년 최수종·최진실이 출연해 큰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질투'의 연출자.

이 드라마는 바람난 남편에게 이혼당한 미주(유호정)가 미국에서 치과사가 돼 돌아와 벌이는 복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배신과 복수를 소재로 하지만 어둠보다는 밝음을 절망보다는 희망에 초점을 맞춰 유쾌하게 이야기를 풀어간다. 미주는 남편 정석(정웅인·사진 오른쪽)을 빼앗은 은영(임지은)의 병원에서 일하며 실수 투성이 복수극을 시작한다. 미주, 은영 외에 이혼하지 않으려고 독을 품고 가정을 지키는 내숭녀 고상미(사강)와 결혼에서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27살 '백조' 양다림(오주은) 등이 가세한다.

/객선정기자 ks@kwangju.co.kr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00-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222-4918	총무부	2200-511
대표팩스	2200-629	(팩스 222-8005)	
편집부	2200-616	광고국	2200-521
정재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1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사업2부	2200-552
사회2부	2200-619	문화사업국	2200-541
(팩스 227-0118)		(팩스 222-0195)	
문화생활부	2200-626	판매부	2200-551
어문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진부	2200-690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5)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사무용 가구의 모든것
필적한방으로 www.hanboGAGU.com
100%에 한보가구를 최면대요

사무용의지 전문생산업체
토치 광주총판
TOUCH
신부호의지 전문생산업체
100%에 한보가구를 최면대요

(株) 행복출판
한글출판사
www.hanbok.com

100 행복출판 (062) 527-3388